

인일의 향기

9기 구창임

올해도 어김없이
인일을 닮은 새 봄이 찾아오고
인일을 닮은 줄장미향이 울타리를 넘는다.

세월의 빗장을 열고
지구 한 바퀴를 돌아와서는
이야기보따리를 맛나게 풀어 놓는다.

나밖에 모르던 작은 소녀가
오늘은
친구의 안부를 묻고
내일은
밥 한 번 같이 먹자고 한다.

친구야
보고픈 내 친구야
벚꽃 흩날리던 자유공원 언덕에서
소리 높이 깔깔대던 단발머리 스웨터야

종종 걸음으로
무거운 가방으로
참새처럼 재잘거리던 기억으로
사라진 원형교사 옛 계단을 타고 피어오른다.

존경하던 선생님 길 떠나시고
정답던 벚들 하나 둘 소식 끊기고
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마저
하늘나라로 가셨는데

나를 붉게 물들이던
그 추억만 남아

하늘로 살고 싶어서
나는 밤마다 교문을 들어선다.

가파른 계단
세월없이,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
숨이 턱에 차도록
아, 그렇게 오르고 또 오른다.

조금은 가물거리지만
꿈처럼 바람처럼
오늘도 나는
인일의 동산을 달린다.

다시 그 자리에서
외치리라
피어나라, 나의 모교 인일이여!

봄, 여름, 가을, 겨울
그저 제자리에 서서

오로지 하늘을 향해
하늘만 바라보면서
외치리라.
모교여, 영원하라!